

# 죄가 생겨난 과정

How Sin Came Into Being

창세기 3:1-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4월 10일 설교

<sup>1</sup>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sup>2</sup>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sup>3</sup>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sup>4</sup>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sup>5</sup>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sup>6</sup>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그게 정말이야?

에덴동산에 동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름을 아는 건 꼭 하나, 뱀입니다. 뱀도 들짐승이니까 혹시나 아담하고 동무가 될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입니다 (창 2:19).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 주었으니 동무는 못 되고 대신 아담의 통치를 받은 셈입니다. 뱀이 다른 동물보다 더 간교했다 하는데 이 말 자체에 나쁜 뜻은 없습니다. 가장 영리했다, 슬기로웠다라는 말입니다 (잠 12:23; 13:16 등). 그런데 그 영리한 머리를 갖고 한 일이 사람을 유혹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든 일이니 간교하다 한 겁니다 (고후 11:3).

뱀의 간교함은 입을 열자마자 드러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나무의 어떤 실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하셨느냐?” 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어디서 주워듣기라도 한 것처럼 물었습니다. 엉터리를 슬쩍 내놓으면서 “정말 그렇니?” 하니깐 우선은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게 뭔지 헛갈리지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을 걸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내세워 말씀의 권위도 은근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하고 물으면 정말인지 일단 의심하게 됩니다.

뱀이 잘못 알고 있다 싶은 걸 여자가 고쳐줍니다. “아니야.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어.” 똑똑하지요? 뱀을 다스릴 사명이 사람한테 있으니 뱀의 잘못을 고쳐준 건 잘 한 겁니다. 그런데 뱀은 생각만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도 모르니?” 하고 뱀의 잘못을 고쳐주는 여자의 마음에 이미 뭐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똑똑한 듯 나서긴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닙니다. 뱀도 틀렸지만 여자도 틀렸습니다. 나도 틀린 주제에 남 틀린 걸 고쳐 주겠다고 나선 꼴이지요. 어떻게 보면 뱀이 전혀 엉뚱한 말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자도 덩달아 혼란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네가 더 엉터리

여자가 뭐가 틀렸습니까? 보통 두 가지가 틀렸다 하는데 제가 보니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제가 보냈습니다. 뭘니까?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했습니다. 물론 손을 안 대면 먹을 일도 없겠지요. 하나님 명령이 지엄하니 그지없다 보니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걸 하나님 명령에다 더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자체의 권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약해진 권위가 여자의 두 번째 잘못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하신 걸 여자는 적당히 에누리해 알고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넣으신 “반드시”를 빼먹어 버렸습니다. 반드시 죽는 거나 죽는 거나 다 죽는 거지만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신 걸 대충 알고 있는 건 이미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가벼이 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보탠 것이 첫째 잘못이고 하나님이 힘주어 하신 말씀에서 힘을 뺀 게 두 번째 잘못이라면 세 번째는 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그대로 안 받고 내 표현으로 바꾼 잘못입니다. 먹으면 안 된다 하신 나무를 여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으니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산 가운데는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그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나무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나무, 어떻게 보면 꼭 먹었어야 할 나무도 거기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아시지요? 예,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과일나무가 많이 나게 하실 때 동산 한 가운데 이 두 가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리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위치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표현을 내 표현으로 바꾸다 보니 편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과일까지 안 먹는, 아니, 못 먹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을 대면 안 된다 생각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그런 방법을 썼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표현을 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보태는 것이나 강조하신 말씀을 예누리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알고 믿지 못한 잘못이지요.

## 안 주시는 하나님?

똑똑한 척 설명해 주는 여자의 말을 듣고 뱀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겼구나! 내가 틀렸다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걸 보니 엉터리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알면서 일부러 속였지만 여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과감하게 여자를 유혹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뱀이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자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거기다가 “아니다” 하는 말만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를 그렇게 뒤집으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가 된 것입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이거 좀 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었으니 여자가 반발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숨 쉴 틈도 안 주고 얼른 설명을 붙입니다. “왜 안 죽는 줄 아느냐? 너희가 진짜 죽을 거라서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고, 못 먹게 하려고 겁을 주신 거다.” 요즘도 “죽는다” 하는 말로 겁주는 사람이 많은데 원조는 이 뱀입니다. 어쨌든 겁을 줘 가면서까지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뭘지 얼른 설명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 선악을 구분해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뱀과 여자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뭘지 아십니까? 시작은 과일,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했지요. 그러다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뱀은 은근슬쩍 화제를 바꾸어 지금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죽지도 않을 걸 죽는다 하셨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지요? 게다가 하나님을 사람과 경쟁하는 하나님, 사람을 견제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뱀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하고 닮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내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지도 못한, 마치 이방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뱀이 흑평하고 있는 하나님은 께께하고 수준도 낮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오해를 한다면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조차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데 뱀이 가르치는 대로라면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건 감추고 안 주시는 분, 그걸 안 주시려고 “먹으면 죽는다” 하고 겁까지 주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 은혜를 모르는 잘못

사실 뱀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여자 스스로도 이미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주신 은혜입니다. “안 된다” 하시기 전에 “이건 된다, 이건 마음껏 하거라”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기 전에 다른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얼마든지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을 보니 조금 다릅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냥 먹으라 하시지 않고 “마음껏 먹어라” 하고 강조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부분을 말할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넣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 된다 하신 것만 생각하고 하라 하신 것을 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뱀이 물어볼 때도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못 먹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으로 분위기를 압도하였으니 정말 간교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더더욱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으라 하셨다” 해야 맞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한테 먹으라 하셨으니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기억해야 맞지요. 그런데 먹으라 하신 걸 신나게 먹을 때는 하나님의 하 자도 생각 안 하다가 먹으면 안 되는 것만 갖고 “아,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하셨지”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과장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마음이 됩니까? 교만이지요. 뱀이 여자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져!” 하고 부추기기 전에 이미 여자의 마음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 번 거루어 보고 싶은, 그런 교만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 아 먹고 싶어

뱀이 영리하다 했지요? 하나님을 사람을 견제하시고 정말 좋은 것은 안 주시는 분으로 헐뜯고 나니 첫 질문의 의도가 다시 드러납니다. 뱀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과일은 일절 먹지 말라 하셨니?” 결국 하나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굳이 이것만은 안 된다 하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니?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가 다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았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하나만 먹지 말라 하실 때는 무언가 의도하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나무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가까이 오긴 왜 왔을까요? 생명나무도 가까이 있었겠지만 그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미 뱀에게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과일을 보니 어땠습니까? 세 가지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완전 세 박자 축복이지요. 우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첫 두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나무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만드신 나무가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첫 표현인 “먹음직하다”는 말은 “먹기에 좋다”는 말하고 원문도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먹음직하게 만드셨으니 먹음직해 보여도 괜찮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보고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유일한 나무입니다. 다른 게 다 먹음직해도 이 나무 열매만큼은 먹음직하면 안 되지요.

두 번째 “보암직하다”는 문제가 더 큼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보기에 아름답게,” 원문대로 한다면 “보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여자가 그걸 보았을 때는 “눈을 즐겁게” 할 것 같았습니다. 눈이 하는 일이 보는 거니 보기에 즐거운 거나 눈이 즐거운 거나 그게 그거 같지요? 그런데 조금 전 뱀이 뭐라 했습니까? 그 과일을 먹으면 “눈이 열릴 거다. 눈이 밝아질 거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뱀이 말한 것처럼 내 눈을 밝게 만들어 줄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세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우리말 번역에서 “만큼”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원문의 뜻은 “지혜를 줄 거라 탐이 난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준다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조금 전 뱀이 “너희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 했거든요. 눈이 밝아져 좋고 나쁜 걸 구분하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무를 쳐다보니 정말로 지혜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이 났습니다. 아, 먹고 싶다. 나 이거 먹으래. 뱀이 이겼습니다.

## 죄란 무엇인가?

이어지는 이야기는 싱거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말로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그랬는데 두 단계입니다. 따는 동작하고 먹는 동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더니 덤석 잡아 한 입에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같이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남편도 먹었습니다. 남편이 같이 있었다 했으니 여자가 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담도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곁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가만 있던 걸 보면 아담 마음이 여자 마음, 곧 이심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과일을 먹은 것은 사람이 처음으로 지은 죄이면서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 곧 원죄가 되었습니다. 원죄는 또 모든 죄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도 알고 보면 아담과 여자 두 사람이 지은 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 뒤집어진 질서

죄의 첫째 모습은 질서가 뒤집힌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동물한테 이름도 주고 잘 하더니 이내 내가 다스려야 할 동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잊고 피조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던지고 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또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원하는 것은 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지만 내가 보니 먹음직스럽고, 눈을 열어줄 것 같고, 지혜를 줘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냥 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인류 최초의 범죄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요일 2:15-16). 아버지 사랑에 마음을 두지 않고 피조물, 곧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죄인데 세상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만 따라가면 마음껏 먹고 구경도 잘 하고 이름도 날 것 같은 착각이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혹 뒤집어졌다면 얼른 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알아야지 내가 보태거나, 에누리하거나, 각색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몇 줄 되지도 않는 말씀마저 엉터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충 알면 위험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면서 누구든지 이 말씀에다 다른 걸 보태면 하나님이 이 계시에서 말씀하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보태실 것이고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빼면 그 사람 이름을 천국 갈 사람 명단에서 빼 버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계 22:18-19).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나오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떠들다가 실패한 여자의 모습에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 교만과 환경

인류 첫 범죄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지은 죄가 그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걸 해 버린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걸 하면 그것도 죄 맞지요. 그렇지만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보고 침을 흘린 것도 죄 맞습니다. 왜요? 이 열매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하고 같아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 침을 흘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하고 같아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짝니다.

한 번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어두워져 판단력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하고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렇지 않다 하는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만의 하나 뱀이 틀렸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도 교만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죽을 줄도 모르고 과일을 따게 하고 또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죽는다고 겁까지 줘 가며 못 먹게 하신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라면 그런 나무를 만들긴 왜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를 듣고서도 억지가 아니라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보다 뱀의 달콤한 속삭임이 더 좋았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나게 만드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교만은 상황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여자는 말로는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면서도 그 나무 바로 곁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쳐다 보았습니다. 뱀이 “절대 안 죽는다” 하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말을 했는데도 정신을 차리고 물리치는 대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 대화가 결국 나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뱀은 가만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물입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아예 멀리 해야 됩니다. 상종을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 은혜를 깨닫는 훈련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건 생각지도 않고 안 주신 것, 안 된다 하신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신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뱀이 다가와 하나님이 널 견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건 너한테 안 주신다, 하나까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떡이 없다고 불평들 많이 하지요. 먹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병에 걸리면 불평하면서도 아프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리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안 그럴 때도 많습시다. 안 괴로울 때, 마음이 안 상하고 일도 좀 풀릴 때는 얼마나 감사를 드렸습니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고 못 먹는 것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면 죄의 수렁에서 못 벗어납니다.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꽃과 나무, 싱그러운 바람, 촉촉한 봄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곧 교만입니다. 교만은 바로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혹의 순간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말에 귀 기울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 주 예수의 은혜

우리는 창세기 삼장을 읽을 때도 창세기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본문의 여자가 못 얻은 도움, 못 누린 특권을 우리는 얻고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오면서 죽음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오래 전 여자가 받은 유혹,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받는 유혹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라는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 2:18). 그 주님이 도우실 것이므로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뱀이 여자를 핀 것처럼 죄를 지으라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것처럼 죄도 똑같습니다. 최초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죄를 이겨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수경 목사)